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如來四智에 대해

해제일이 지나자 스님 몇이서 찾아왔다. 이들은 학문수행과 심성수행으로 기본이 튼튼히 다져진 종단의 희망으로 보이는 스님들이었다. 그들 중 한 스님이 내게 물었다. "여래사지(如來四智)에 대한 스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하여, 내가 말하였다.

"대원경지(大圓鏡智)와 평등성지(平等性智)그리고 묘관찰지(妙觀察智)에 대해선 묻지 않겠습니다. 스님들 중 누구라도 좋으니 성소작지(成所作智)에 대해 간단하게 무엇이 성(成)이고 무엇이 작(作)인지 먼저 설명해 보시지요." 대중이 쉽게 답을 못하자 내가 말하였다.

"불교의 핵심사상은 중도(中道)와 연기(緣起)입니다. 종단의 한 원로 스님께서 자주 중도사상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반쪽 설명에 그치고 있으며 일생을 수행해 오신 어느 수좌 스님도 연기법칙(緣起法則)을 이해하는데 있어 연기(緣起)와 무아(無我)를 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기와 무아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연기(緣起)는 (Brahman)을 인정할 수 없듯 아트만(Atman)의 존재도 부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기(緣起)와 무아(無我)를 둘로 나누어 설명함은 연기의 참뜻을 사무치게 녹이지 못한 탓입니다.

이쯤해서 질문하신 여래사지(如來四智)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래에겐 사지(四智)도 군더더기 사족(蛇足)일터이나 중생을 위해 마지못해 부쳐진 이름일 터입니다. 부처(如來)가 되면 네 가지 지혜(四智)가 나타나는데 첫째가 대원경지(大圓鏡智)입니다. 모든 인연과 경계가 끝이 없으나 묘법정안(妙法正眼)으로 친소(親疎)가 둘이 아니요 피아(彼我)의 구분 없이 만 가지 덕(德)의 근본으로 중생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모서리와 변두리가 없어 우주공간 그대로가 틀이 없는 맑은 거울과 같아 부쳐진 이름입니다.

둘째는 평등성지(平等性智)입니다. 미(迷)와 사(邪)가 낄 수 없는, 우월과 열등의 높낮음 없이 유(有)와 무(無)의 차별과 집착도 없이 범성(凡聖)이 둘이 아니요 거래(去來)와 생멸(生滅) 단상(斷常) 등이 둘이 아닌 하나로 어우러진 세계입니다. 이는 팔불중도(八不中道)의 평등성을 강조해 부쳐진 이름입니다.

셋째는 묘관찰지(妙觀察智)입니다.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에서 벗어나 온갖 미(迷)와 의(疑)에서 자유롭습니다. 진공(眞空)이나 묘유(妙有)인 것이 묘관찰지(妙觀察智)입니다.

네 번째는 성소작지(成所作智)입니다. 수행의 목적은 성불(成佛)에 있고 성불의 완성은 중생구제의 실천에 있습니다. 중생들을 대함에 있어 무연대비(無緣大悲)의 실천으로 중생을 위해 중생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작(作)이요 중생의 소원하는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보시(布施)를 실천하는 것이 성(成)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존재 이유는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데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수행을 완성한 부처(如來)라면 중생을 위한 무연대비(無緣大悲)의 다함이 없는 행동의 실천, 이타행(利他行)을 생활화하는 보살정신의 실현(實現)이 성소작지(成所作智)입니다."

행복·자유를 누림이 종교의 생명력
이타행·보살정신 실현이 '成所作智'

존재론적 실상의 우주법계를 원인과 결과로 실체를 밝힌 것입니다. 중도(中道)는 시간과 공간의 주인공임을 일깨워주는 존재의 덕목을 중(中)과 정(正)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래의 사지(四智)를 설명하자면 중도(中道)의 정의에 대해 간단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중(中)은 정(正)인데 중(中)에서는 대(對)와 변(邊)에서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함을 의미하며 정(正)에서는 미(迷)와 사(邪)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머묾 없이 자유로워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중도(中道)는 유교의 중용(中庸)과 달라 양변불락(兩邊不落)이 아닌 양변무애(兩邊無碍)이며 무변중심(無邊中心)인 것입니다. 임제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 또한 중도를 드러낸 말입니다. 불교의 중도에는 대(對)와 변(邊), 미(迷)와 사(邪)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를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기법칙의 원리는 원인이 없는 결과 없고 결과에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어 돌연변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인 브라흐만

본성 직시하는 화두법 제시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육조 혜능 선사로부터 법을 이은 사람이 모두 43인이 있지만 이 가운데 5대 제자라 하여 다섯 사람을 꼽는다. 남악 회양(南嶽懷讓), 청원행사(靑原行思), 영가진각(永嘉眞覺), 남양혜충(南陽慧忠), 하택신회(荷澤神會)이다.

이 가운데 육조 혜능 선사의 수제자가 되어 남악파(南嶽派)를 이루어 육조 사후 정맥(正脈)을 이어 선법을 크게 드날린 이가 남악 회양 선사(677~744)이다.

그가 처음 육조를 배알했을 때 있었던 일을 〈선문염송설화〉 119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육조 혜능 선사가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남악 회양 선사가 대답했다. "숭산(嵩山)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어떤 한 물건이라 말하여도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수증(修證:방편을 닦아 깨닫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

"수증이 없지는 않지만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염되지 않는 그것이 부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그대도 이미 그렇고 나도 또한 그렇다."

이 이야기는 후에 '남악설사일물(南嶽說似一物)'이라는 말로 널리 알려졌다.

선사(禪師)들의 질문을 직설(直說)이라고 한다. 인사하러 온 사람에게 대뜸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고 묻는 것은 예의범절과 상관없이 깨달음의 본성을 직시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의심 덩어리(疑團)인 화두 하나를 안겨주는 것이다.

〈선가귀감(禪家龜鑑)〉에 나오는 말에 "부처님은 활(弓)을 설하시고 조사는 줄(絃)을 설하신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곡담(曲談)과 직설(直說)을 활등과 활줄에 비유해 한 말이다. 활은 등이 굽고 줄은 곧다. 부처님 말씀은 활등과 같고 조사의 말씀은 활줄과 같다는 뜻으로 활을 설하고 줄을 설한다 한 것이다. 자상한 설명은 활등이고 격외선지는 활줄이다.

어떤 스님이 조주(趙州) 스님에게 물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如何是祖師西來意)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뜰 앞의 잣나무니라."(庭前栢樹子)

'뜰 앞의 잣나무가' 바로 활줄과 같은 격외선지(格外禪旨)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느 선사를 찾아간 거사 한 분이 선사에게 지옥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지옥을 알고 싶은가?" "예 스님."

선사가 주장자로 거사의 이마를 한 대 때렸다. "아니, 왜 갑자기 사람을 때리십니까?"

거사가 아파서 화를 내었다. 선사가 껄껄 웃으면서 "자네에게 지옥을 가르쳐 주었네. 화를 내는 그것이 지옥일세." 묘한 뉘앙스가 남는 말이다.

남악 회양 선사의 문하에서 걸출한 선승들이 많이 배출 되었다. 마조도일에 이어 백장 회해, 황벽희운, 임제의현 등은 남악의 적손으로 중국 선종사에서 큰 산봉우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남악 회양 선사의 법통을 이어 후에 임제종과 위앙종이 탄생하여 종파를 이루었다.

특히 돈오돈수(頓悟頓修)의 종지를 선양한 임제종의 가풍이 조사선(祖師禪)을 형성하고 간화선(看話禪)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선종의 5종7가 가운데 임제의 종풍이 가장 널리 드날려지게 되었다.

〈전등록〉 '남악회양전'에는 그가 제자 마조 도일 선사가 좌선에만 집착하는 것을 타이르는 말이 나온다.

"그대가 좌선(坐禪)을 배우는 것인가? 앉은뱅이 부처(坐佛)를 배우는 것인가? 만약 좌선을 배운다면 선은 앉고 눕는데 있지 않고, 만약 앉은뱅이 부처를 배운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머무름이 없는 법(無住法)에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인연이 맞아야 도를 본다고 말해준다. 도일 선사가 물었다.

"도는 형상이 아니거늘 어떻게 본다고 합니까?"

"심지(心地) 법안(法眼)이 있으면 도를 능히 본다."

好·不好 여의면 참모습 본다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⑦ 존재의 이유

한 그루의 나무에는 나무 몸통, 나무 줄기, 나무 잎, 나무 열매가 있다. 몸통, 줄기, 잎, 열매는 모두 나무의 다른 이름이므로, 우주 일체 존재에 붙여져 있는 모든 이름은 우주의 다른 이름 즉 별칭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허공과 그 수명이 같아서 설령 육도를 끊임없이 윤회하여 각양각색 형체로 바뀌어 태어나도, 그 마음 만은 결코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불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득 미혹한 마음을 일으켜 갖가지 업을 지어 그 과보를 받으며, 본성을 잃은 채 속세의 풍류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육신은 생멸하지만, 영각(靈覺)의 성품은 생멸하지 않는다."

중생은 어째서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어리석고 미혹한 업(業)을 짓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미혹한 업이란,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생각, 즉 6근과 6진이 다르다는 미혹한 생각으로 인해서 '부처와 중생', '생과 사',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의 분별망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는 모든 생각 자체가 이분법인 분별망념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혹한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들이 어떤 훌륭한 풍경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드러납니다.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여, 좋아하는 마음과 구하려는 마음에 가로 막히게 됩니다.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만 좋아하는 나의 생각과 느낌을 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보잘 것이 없고 아름답지 못한 풍경이나 모습을 볼 때는, 그 모습을 싫어하여 벗어나려는 마음에 가로 막혀서 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싫어하는 생각과 느낌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다 없다',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사대(四大)의 육신은 생멸하지만, 분별이 없는 영각의 성품인 참 마음은 생멸하지 않습니다.

"자네가 지금 이 본성을 깨닫게 되니, 우리는 이를 이름 하여 장수(長壽) 또는 여래무량(如來無量) 혹은 본공부동성(本空不動性)이라고 일컫는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은 오직 이 성품을 도(道)라 하여 깨달았던 것이다. 지금 자네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작용은 자네의 본성 또는 본심이라고 이름 하는 것인데, 이 마음을 떠나 따로이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견문각지(見聞覺知)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5온의 색, 수, 상 행, 식에서 색과 수는 견문에 해당하고, 상과 행은 느낌에 해당하며 식은 앎과 같은 뜻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5온이 공하고 무(無)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5온이 본래 이 마음의 별칭이므로 '공하고 없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5온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5온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없는 것도 아니므로 5온이 마음이고, 마음이 5온이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이니라. 마땅히 머물지 않으면 그 마음이 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불문하고 우리들이 일으키는 생각은 스스로 일어 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오직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나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눈으로 보고, 보는 것이 눈이며,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여, 6근의 작용이 모두 이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보고, 보는 것이 눈이며,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은 마음이 보고, 보는 것이 마음이며,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 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범패·작법무·의식과정 학인모집

▼ 아래와 같이 제15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기초범패-소리과정**(1년 과정 - 매주 목요일) : 기본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2시 ~ 3시 10분) 사십구재·천도재·장엄 및 제사 준비 등 전 과정

■ **기초작법-무용과정**(1년 과정 - 매주 목요일)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오후 3시 30분 ~ 5시)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 **전문과정**(매주 수요일) : 기초과정 수료자(동 자격을 갖춘 분) - 영산재 전 과정 소리 및 작법무(바라무·나비무), 화청(회심곡)
(오후 2시 ~ 4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전문과정 - 2017년 3월 15일(수요일) 오후 2시**
  기초과정 - 2017년 3월 16일(목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7년 2월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6)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